한우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으로 세계에 한우 알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 10월 14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비즈니스대상(IBA)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IBA(International Business Awards)는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의 사업 활동을 15개 부문에 걸쳐서 평가하는 프리미엄 국제대회다. 한우자조금은 지난해 펼친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캠페인'을 출품해 마케팅 부문에서 금상을, 기업커뮤니케이션 PR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한우직거래 장터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한우소비 촉진과 친근한 한우 이미지를 주기 위해 한우 할인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정훈 홍보 · 마케팅 팀장은 "이번 수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한우서포터즈를 통해 세계인에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2012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의 PR · 이벤트 부문 최우수 PR · 이벤트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2013. 10. 21

한돈 한돈협회 18대 수장에 이병규씨

대한한돈협회 제18대 회장에 이병규씨(경북 청도, 청록축산)가 선출됐다. 183명의 대의원 중 1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7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치러진 한돈협회장 선거에서 이병규 당선자는 108표를 획득, 67표를 얻는데 그친 김건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1표는 기권 처리됐다. 이병규 당선자는 이날 선거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전국 양돈농가들의 일꾼으로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지도자로서 양돈농가들의 뜻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한돈협회'를 표방해온 이병규 당선자는 기업자본의 양돈업 진출 규제 법제화와, FTA폐업보상 실현, 자급률 사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분뇨처리 고민해소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가운데서도 "기업 자본으로부터 흔들리거나 다시는 아픔 받지 않는 국민식량산업을 만드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병규 당선자는 1959년생으로 경동대학교(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돈협회 감사와 부회장,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공식임기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취임식은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임기는 4년이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3. 10. 21

양계 제1회 한닭인대회 개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토종닭협회와 ㈜한협이 주관한 제1회 한닭인대회가 지난 10월 10~11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500여명의 토종닭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토종닭 산업 종사자들은 토종닭이 행복한 먹거리, 문화 · 관광의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로 거듭나는데 노력하며, 안전하게 토종닭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또한 종자 전쟁시대에 맞서 토종 종자를 사육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식량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철저한 소독으로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앞장서고 차단방역에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김연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토종닭 한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닭이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향후 예고되는 종자전쟁에서 국가의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높여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한닭 산업을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토종닭 요리 개발은 물론 해외로 토종닭을 수출함으로써 국내 · 외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2013. 10. 18

낙농 육우 낙육협, 우유급식 제도화 대국회 활동 역량 집중

낙농육우협회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우유급식 제도화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0월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우유급식 제도화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황규택 부회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대비 낙농산업 피해대책은 직접지불보다 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기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유급식 제도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유급식제도화를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한 만큼 대국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회중앙회와 협회 지역조직이 연계해 해당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우유급식제도화와 학교우유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군 우유급식 확대 및 경찰병력 우유급식 실시, 군산우유의 영양 및 우수성 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택 소위원장은 “우유급식 제도화는 FTA대비 낙농산업의 핵심적인 출구전략”이라며 “향후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3. 10. 21

양봉 산청에서 ‘전국 양봉인의 날& 꿀축제’ 성황리에 열려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리는 청정 산청에서 ‘제39차 전국 양봉인의 날&벌꿀축제’행사로 전국 양봉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양봉협회 주관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부행사장 일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과 신성범 국회의원, 조진래 경남도정무부지사, 이재근 산청군수, 아시아양봉학회 부회장, 우건석 서울대명예교수,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1만 여명의 양봉농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산청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국의 양봉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으며, 오후 4시 40분부터는 양봉인 노래자랑과 인기가수 김혜연, 홍진영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전야제 행사로 한 · 중 FTA를 대비한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벌떼들이 가져온 꿀단지가 우리군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활력소가 되어 지리산방문의 해인 2014년에 온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경남) 정종원 기자 2013. 10. 16